

인더뷰 “근검과 절약으로 오늘의 榮光이”

— 저축의 날 국민포장수상자

강세춘 사장 —



지난 25일 저축의날 기념식의 수상식에서 우리는 너무도 낮은 주의의 인물을 만나 반가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본지의 편집위원이며 영국로스 농장 대리점 광일농장의 주인인 강세춘사장— 수상자 중에서도 서

열이 높은 국민포장 훈장을 수여 받은 강사장은 한사코 상을 받은 기쁨을 남에게 보이기를 사양 하였다.

“저축은 제 어려서 부터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저축을 해야 한다는 신념같은 것이 생긴 것이지요”. 반드시 저축액이 많다고 하여 수상을 하는 것은 아닌 이 「저축의 날」 유공자 포상은 평소 그의 허름한 차림의 검소한 모습에서 입증하는 근검절약 하는 생활태도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의 저축심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입증하는 일로서는 적금과 예금의 구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외에도 그는 광일농장의 모든 종업원들을 재형저축에 가입 시켰으며 그 종업원들에게 늘 월급의 한푼도 허뜨리지 않고 통장에 넣기를 권고한다. 또한 그와 거래가 있거나 안면이 있는 양제인들 모두가 그가 튼나는 대로 저축을 권유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인산농원을 거쳐 한일농원에 10년간을 몸담고 있다가 작년부터 광일 부회장을 시작한 강세춘 사장에게 불황을 이기는 비결을 물어 보라.

서슴없이 “힘써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뛰어라”고 귀뜸 할 것이다.